

순정이

연중 제12주일

제1독서 : 욥 38, 1, 8-11
제2독서 : 2고린 5, 14-17
복음 : 마르 4, 35-41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2고린 5, 17).

강론

소리

“고난기에 사는 친구들에게”

엄기봉 신부 / 오룡동 천주교회

이 암담한 시기에도 사랑하는 벗들이여,
나의 말을 받아들여라.
인생이 밝든 울적하든, 나는
인생을 닦하지 않을 것이다.
햇빛과 폭풍우는
같은 하늘의 다른 표정에 지나지 않는다.
운명은 즐겁든 괴롭든
훌륭한 나의 양식으로 쓰여져야 한다.
꼬불꼬불한 오솔길을 영혼은 걷는다.
그의 말을 읽는 것을, 그는
내일이면 은총이라고 찬양한다.
설익은 것만이 죽어간다.
다른 것들에게는 신성을 가르치겠다.
낮은 곳에서나 높은 곳에서나
영혼이 깃들인 마음을 기르는
그 최후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우리들은 자신에게 휴식을 줄 수 있다.
거기에서 우리들은 하느님의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하늘을 우러를 수 있다.

위에 소개한 글은 헤르만 헷세의 시집에 나오는 한 작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픔을 응시하면서,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양식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한다.

오늘 제1독서인 구약성서 욥기에는 ‘고통은 왜?’ ‘왜 선인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저자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섭리와 돌보심은 헤아릴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4장 ‘잔잔해진 풍랑’에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암시한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영혼의 안식, 참휴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언론을 어찌할까?”

‘국민은 제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말은 누가 했는가? 옳은 말이면서 진실을 호도시키려는 의도도 들어 있는 말이다. 냉소와 절망을 적당히 버무려 안겨 주려는 듯 말이다.

광역의회선거가 끝났고 길으로는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고 있는 듯이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정부가 중앙집권하고 있는 한 크게 개선될 여지가 어디에 있을까?

올 상반기가 처절하게 지나갔지만, 언론은 대부분의 지면과 시간을 집권자를 비호하는데 쓰고 말았지만 ‘국민의 수준’은 정부나 언론과는 이제 비교할 바가 아닌 역량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오늘 이 나라에 언론이 필요한가?

오늘 이 사회에서 언론이 할 일이 무엇인가?

‘시대의 징표’를 올바르게 볼 줄 알고 전망을 밝히고 시비를 차분히 가려낼 줄 아는 신문 방송이 왜 이리 드물까! 현상(겉)과 본질(속)을 뒤바꾸거나 거짓을 참되다고 하는 언론을 이제는 폭력배나 모리배라고 부른다고 그 누가 뭐랄 수 있을까.

통일문제에 아무런 대안도 성실성도 없이 냉전논리만 되풀이 하는 신문, 민주화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젊은이 학생들을 진지하게 다뤄본 일이 한 번도 없는 방송이다.

‘국민은 제 수준에 맞는 언론을 갖는다’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마음만 먹으면 꺾질뿐인 언론사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을 바이지만 국민이 바라는 것은 말하자면 ‘안정’과 ‘평화’라고 하니 언론은 제 갈 길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의는 곧장 실천으로 옮겨져야 할 일이다. 각자의 자리에서부터. **☞**

순정이 산책



“땅을 살리는 유기농업”

유기적이란 말은 ‘서로 긴밀하게 의존하며 공생한다’란 의미이다. 유기농업은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모든 피조물과 공존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농업일 뿐 아니라 인간끼리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자 하는 유기적인 삶을 말한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서 하느님이 주신 그대로 충족시키며(충만), 땅을 가꾸고 또 생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셨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일관되게 땅을 지키고 가꾸고 다스려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다.

땅을 바라보는 눈은 보는 이마다 다를 것이다. 부동산 투기꾼은 땅을 볼 때, 땅값이 오를 것인가, 투자 가치가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며, 지질학자의 눈에는 이 땅이 어떤 광물질로 구성되었는가, 어떤 지층을 이루고 있는가를 관찰하려고만 할 것이다. 그러나 농사꾼에 있어서 땅은, 대지는, 토양은 단순히 돈으로 바뀌어지거나 관찰되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며 목숨과 같은, 아니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인간과 모든 생물을 먹여 살리는 젖줄과 같은 대자연의 어머니인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건강과 삶과 생명을 책임지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땅, 땅을 살리는 농사 방식이 바로 삶의 농법 이요 생명의 농법이다. 그러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농민이 죽고, 땅이 죽고, 땅과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산된 먹거리를 먹고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고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는 농법이 바로 죽음의 농법인 것이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수천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탐관오리와 악덕지주가 기승을 부리지 않는 한 풀뿌리와 나무껍질에 신세지지 않고 자연의 순리에 맞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농사 짓고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산업문명의 발달과 풍요를 얻으려는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독재 권력과 내의 독점자본의 농민 수탈로 강요된 화학농법이 시작되었다.

강도높은 농약의 사용으로 꽃가루를 옮기는 벌과 나비가 줄어들고 논밭에는 각종 해충을 잡아 먹고 사는 거미 등 천적들이 사라지고 개울과 도랑에는 가재, 미꾸라지, 송사리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시골의 풍취를 느끼게 하는 밤하늘의 반딧불도 사라지고 심지어 벌레를 잡아 먹고 사는 제비도 1/5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각종 생물들의 감소는 결국 농약의 악용으로 자연이 파괴되고 그 댓가로 많은 사람들이 신경질환과 관련된 병, 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병이 수도 없이 생겨나기도 한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발행한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농약중독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87년 1,400명이라 한다. 이 사망자 수는 전쟁터의 전사자가 아니라 자연을 더불어 업을 삼는 농민의 사망자 수다.

흙은 살아 있다. 흙은 생명활동을 한다. 토양은 숨도 쉬고(통기성), 물도 마시며(보수성), 음식(비료)도 섭취한다. 사람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균형있는 영향을 섭취하듯이 토양도 역시 마찬가지다. 토양도 곡식을 생산해내기만 하고 적절한 밥(거름)을 옮겨 먹지 못하면 지력이 쇠약해지며 사람이 영양제만 먹고 살 수 없듯이 토양도 금비(화학비료)만으로는 건실한 작물을 키워낼 수 없다. 그래서 유기농법이나 자연농법의 주목적은 인위적이 아니고 자연의 섭리대로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하느님의 창조 질서는 모든 피조물이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다. 돈을 벌 욕심이나 이웃이야 어찌되건 자기만 건강하면 된다는 이기주의를 뛰어넘어 농민은 소비자의 생명을 걱정하고 소비자는 농민의 생활을 생각하는 상호 신뢰와 협동 속에서 땅을 살리고 모두가 함께 사는 유기적인 삶을 이루어야 한다.

〈전주교구 가톨릭 농민회 제공〉

신선한 생맥주와 함께 생활의 맛과 여유를 찾으십시오.

카이저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 (신자 환영)

☎ 85-8801
(한성여관 사거리)

우리집두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성환숙 (조기리이)
김영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앞)

☎ 85-8848

中·高 재학생을 위한 7월 강좌

영어수학강좌

개강 7월 1일(월)

대입준비 **정학생학원**

전주 74-7424 85 7424 시영일 중명생원장

시절 대입 정규 종합반 개강 7월 1일
대입 야간 종합반 개강 7월 1일

주부사원모집

☎ 주 88-8027, 8028
야 71-5827

중앙동사무소 옆
김금주(벨리도)

(주)계몽사 남전주지사 창립

잡 간

“통일과 한국천주교회”

70년대까지는 통일이란 말만 해도 용공이나 좌경으로 매도되었는데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 각계의 모든 분야에서 통일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제 곧 통일이 될 것 같은, 통일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다. 최근 세계 정세의 변화와 정부의 북방정책, 그리고 붓물처럼 터져나온 민간차원의 끈질긴 통일운동 등 일련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가지적인 결과(세계청년학생축전참가, 남북총리회담, 범민족대회, 남북체육회담, 남북축구단일팀구성 등)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는 통일을 앞당길 전조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민족의 화해와 통일, 더 나아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교회는 무엇을 해왔는가? 물론 교회 안에 ‘북한선교위원회’와 ‘통일사목연구소’가 있어 북한교회의 옛 명칭을 그대로 존속시키며 통일의 꿈을 키워왔고, 북한을 방문 나름대로 노력해왔지만 시대의 흐름을 볼 때 웬지 미흡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89년 제44차 세계성체대회에서 “조국이 분단된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는 한국은 상호 불신 때문에, 형제적 사랑으로 화해할 수 있다는 신념이 없기 때문에 분열된 세계를 상징한다”고 하셨던 교황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해주고 있다. 북한 선교와 민족의 구원이란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반민주적, 반인간적, 반복음적 행태를 거부하면서 이북의 형제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화해를 이룸으로 민족통일, 평화통일, 더 나아가 조국통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6·25 41주년, 분단 46년! 언제까지 이산의 아픔을 살아야 하는가?’

요심이 (933) 김병오



교 구 소 식

1. 사제 평의회: 6월25일(화) 오전10시 교구청.
 2. 교황주일 2차 헌금: 6월30일에 있음.
 3. 축! 건진: 6월29일 오후8시 도통동 성당 축성식과 함께합니다.
6월30일 오전10시 신풍 성당.
 4. 중·고 교리교사 하계 연수: 6월28일-7월1일 송광사 제2야영장.
 5. 교구 중·고생 여름 캠프: 7월29일-31일 송광 야영장, 신청·문의-7월6일까지
· 교육국(85-0041), 선착순 300명에 해당하는 본당, 대상-중·고생.
 6. 여자 쟈 모임: 6월30일 오후2시30분-5시 가톨릭센터, 대상-모두(3젠·어른).
 7.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6월28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강사-서용복 신부.
- ※ 축! 영명: 24일(성요한제자) 김봉희, 왕수해, 한기호, 김요안, 양석현 신부님.
29일(성베드로, 바오로) 서석기, 김병영, 김영신, 박창신, 엄기봉, 문규현, 이순성, 김희남, 박인호, 정양현, 방의성, 김교동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나지렛 예수 재매회” 성소자 모집
 마산교구에서는 교구 설립25주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수녀회를 창설하고, 동이촌 선교 및 공소사목과 가나하고 소의원 이들을 위한 봉사에 나서고자 합니다. *활동: 동이촌 선교 및 공소사목, 사회복지시설 운영. *입회자격: 만30세 미만의 고교 학력 이상인 자로서 영세한 지 3년 이상 경과된 신앙이 독실하고 건장한 미혼여성. *문의처: (635-950) 경남 창원시 마산진문동 2구 206번지
 유 불 호 (바르톨로메오) 신부
 ☎ (0559) 32-6295

백운전자
 방송용 앰프 설비 (인켄, 롯데) 학교, 교회, 강당, 빌딩, 새마을 비디오 촬영, 각종 마이크
 전주중앙시장동 (시민약국앞)
 ☎ (0652) 252-0231
 백정수 (리노), 이순님 (테레사)

양재·한복·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시원
 ☎ 86-2715
 * 냉난방 완비

* 생활속에 동화를 불러옵니다 *
 원목가구·생활용품
미지트 중앙동대리점
 관동로 진신아 꽃집 옆
 ☎ 84-8725
 범 덕 배 (미도)

● **성소모임** 살레시오수도회: 오늘 오후2시 가톨릭센터 2층 평화신문사 (062)55-033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농촌7) 자연농법 생산자들에게 감사!

천직농부(天職農夫)의 귀한 양심을 묵묵히 지키며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자연농법(유기농법) 생산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들이 생산한 깨끗하고 정성어린 먹거리를 적극 애용합니다.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부보쌈
 오 재 천 (안드레아)
 정 불 교 (마카렐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삼익악기동서로판매장
 피아노·교회용전자올젠관·현악기면세판매 (각종악기구입, 음악교육 및 연주지도상담)
 김 태 우 (일풍소)
 황 진 숙 (오셀라)
 동서 관동로 다지고 입구
 ☎ 88-7717, 88-7718

태화신발백화점
 신사화·슈퍼화 } 총판매장(공정직영)
 아동화·특수화 }
 김 문 식 (베드로)
 ☎ 82-3118
 풍남문, 종각, 송악로 시거리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보좌신부 82-9664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목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송 남

1. 교무금 및 주일헌금이 부진합니다. 교우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교리교사 하계연수회 : 초등부 24~27일, 중·고등부 28일~7월 1일 장소-송광사 제2야영장. 3. 빈첸시오 : 27일 전9시30분. 4. 제대회 : 27일 전10시30분. 5. 유아세례 : 29일 후2시30분(대부분과 같이 오시기 바람).
 6. 청년회 월례회 : 오늘 후8시 ; 주제 : 공동체 의식과 참 봉사.
 7. 사무실 근무시간 : 전9시~12시, 후2시~6시, 저녁7시~8시, 휴무일-월요일.
 8. 금주천사 : 중노2가 10·11반, 차주청소-중노2가 12·13반.
- 지난주 봉헌금 : 742,240원 □ 교무금 : 573,000원

*** 목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군

1. 초등부 교사연수 : 24~27일 송광사 야영장. 2. 중·고등부 교사연수 : 28~7월1일 송광사 야영장. 3. 제대회 : 27일 오전10:30분. 4. 빈첸시오회 : 27일 오전10:00. 5. 병자 봉성체 : 28일 오전10시30분(사무실에 신청바람). 6. 유아세례 : 29일 오후7:00. 7. 회창단회 : 30일 저녁미사후. * 교황주일 2차헌금 실시(30일).
 - * 전신자 성가연습 : 주일 공식미사전 30분(미사중 부를 성가).
성당청소(29일) : 이땅의 빛Pr. 박히오리다Pr.
금주 전례 : 해설-정승훈 독서·봉헌-황진주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오경화 독서·봉헌-김수영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10,980원 □ 교무금 : 706,5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1. 오늘은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
 2. 축 영명 : 세례자 요한-본당신부님(24일), 축하식-오늘 공식미사후.
 3. 성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4. 반미사 : 28일(금) 1구역4반 (하신평).
 5. 올드레아 : 27일(목). 6. 성가대 월례회 : 28일 저녁.
 7. 교황주일 : 다음주 2차헌금.
 8. 유아세례 : 29일(토) 저녁미사중, 접수-사무실. 9. 성서읽기 : 부가17장~24장. 10. 청소년사 : 성실하신 동정녀.
 11. 금주 전례 : 해설-여정진 독서① 양대환 ② 김순이
봉헌-서병철, 김단오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 김봉길 ② 이준봉
봉헌-이기봉, 이준희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51,080원 □ 교무금 : 76,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 오늘은 연중제12주일 ! (6월은 예수성심성월).
1. 회의 : ① 꾸리아-오늘 오후2시 ② 사목회-7월3일(수) 저녁미사후.
 2. 알림 : ① 신부님 영명축일-6월29일(토) 축하식 6월30일(일) 공식미사후. ※ 신부님을 위하여 주님께 신자들의 많은 기도바랍니다. ② 성심회 임원개편 : 회장-조귀례(누시아)자매님, 부회장-오효시(요세키나)자매님, 총무-황준순(모니카)자매님, 서기-임선경(가타리나)자매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③ 반모임 : 28일 6월26일(수) 후8시30분. ④ 예비자교리-7월부터 성탄반 교리를 시작하오니 많은 인도바람. ⑤ 초등부 교리교사 하계연수-6월24일(월)~27일(목) 송광야영장.
- 지난주 봉헌금 : 602,980원 □ 교무금 : 315,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1. 일요일 교리반 : 매주일 오전9시.
 2. 제대꽃 봉헌회 모임 : 오늘 공식미사후(결산보고 및 다과회).
 3. 초등부 교리교사 연수회 : 24일~27일.
 4. 중·고등부 교리교사 연수회 : 28~7월1일.
 5. 중·고등부 학생회 : 오늘 학생미사후(적극참여).
 6.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기금마련 : 차와 티셔츠 판매.
 7. 유아영세 신청바람(사무실).
 8. 청소년사 : 주공3단지APT 동편.
- 지난주 봉헌금 : 412,380원 □ 교무금 : 245,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김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1. 성전보수헌금 바람. 2. 동산을 직거래 특별강론 : 오늘 미사중에.
 3. 설마리아 꾸리아 : 오늘 오후2시.
 4. 초등부 교리교사 하계연수 : 6월24일~27일 송광야영장.
 5. 올드레아 : 다음주 공식미사후.
 6. 다음주 교무금 납부주일입니다.
 7. 사순절 폐지저금통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8. 7월부터 주일에는 혼인없음. 9. 미사에 늦지 않습니다. 10. 다음주 교황주일 2차헌금 있음.
- 금주보수비헌금액 : 5,021,000원 현재모금총액 : 232,441,691원
금주보수비헌금액 : 없음. 현재신입총액 : 253,119,618원
□ 지난주 봉헌금 : 1,450,13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 ※ 다음주일은 교황주일 입니다 : 2차헌금에 정성을 다합니다.
1. 축! 영명 : 성 토마스도 축일 축하식-다음주 공식미사후. * 7월3일 축일에는 축하연은 없음.
 2. 초등부 교사 하계연수 : 24일~27일 장소-송광사 제2야영장.
 3. 중·고 지도자 하계연수 : 27일~30일 장소-송광사 제2야영장.
 4. 교적없는 교우와 쉬는교우 방문 : 27일 전12구역 후13구역.
 5. 전신자 성지순례 결산 : 수입-3,130,000원, 지출-2,860,470원, 잔액-269,530원. * 잔금은 본당 건축금으로 봉헌합니다.
 6. 회의 : 올드레아-오늘 공식미사후, 꾸리아-오늘 후2시30분, 성가대 월례회-어머니미사 후, 청년회-오늘 오후5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 730,760원 □ 교무금 : 1,075,5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초등부 교사 하계연수 : 6월24일(월)~27일(목) 송광사 제2야영장.
2. 중·고교사 하계연수 : 6월28일(금)~7월1일(월) 송광사 제2야영장.
3. 반모임 : 25일(화) 오후8시30분-동남삼정 1·3동, 26일(수) 오전10시30분-동산, 오후2시30분-성원골드맨션.
4. 첫 영성체 : 29일(토) 어린이 미사중에 있습니다.
5. 청년회 모임 : 29일(토) 오후8시30분-많은 참석과 성원을 바랍니다.
6. 청소년사 : 동정마리아Pr.
7. 금주 전례 : 김옥희 독서·봉헌-김혜화·신정권
차주 전례 : 장병순 독서·봉헌-김정자·양노섭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중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 ※ 오늘은 본당을 위한 2차헌금이 있습니다(월1회 실시). * 다음주는 교황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1. 예비자 교리시간 안내 : ① 일 09:30 ② 목 전10:30 ③ 금 후8시. * 예비자를 적극 인도합니다. 2. 축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 : 토(29일). 3. 주일용 거룩히 지냅니다. 4. 모임안내 : ① 꾸리아 수 전10시(교육관) ② 성구회-오늘 오후2시(전주교대).
 5. 유아세례 : 오늘 오후3시. 6.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 주일입니다. 7. 가정방문 : ① 공작아파트 화~수 ② 세경아파트 화~수 후2시
- 지난주 봉헌금 : 1,184,600원 □ 교무금 : 1,309,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홍 두

- ※ 축! 영명-본당신부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1. 성지순례 : 오늘 오전7시 출발.
 2. 25일(화) : 저녁 용성반.
 3. 들담회 : 27일(목) 저녁8:00.
 4. 반기도회 준비모임 : 28일(금) 10시미사 후.
 5. 삼개리 공소미사 : 28일(금) 저녁8시.
 6. 가정방문 : 25(화)-26일(수) 한신코아 5·6동, 27일(목) 만절리.
- 차주 모임 : 요새회, 반석회 신축헌금 총신입액 : 95,810,000원 봉헌액 : 710,000원
차주 전례 : 해설-박명래 독서① 김상기 ② 양해순
기도-정효현, 박명애.
□ 지난주 봉헌금 : 952,750원 □ 교무금 : 999,000원